

기고

문화관광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중심도시 광주



오승준
광주문인협회 이사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세계가 인정할 기록문화 유산 등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타 시·도가 갖지 못한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와 무등산이 있고, 양림동 역사 문화마을,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관광 자원이 많지만, 2015년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만6,000명으로 방한 외국인 1,323만1,000명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광주관광이 부진한 이유는 지역을 대

표할만한 관광상품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 낙후, 이에 따른 숙박·교통 등이 타 지역보다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리조트단지 부재, 철도·항공수단 취약에 따른 수도권 등으로부터 접근성 열악과 숙박시설 부족, 취약한 재정 등도 문제다.

불거리 부족·관광 고비용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광주 여행 불만 사항으로 불거리 부족과 높은 관광비용 등이 꼽히고 있다.

독일나치만행 박물관은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고, 홀로코스트추모단지는 연간 9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반면,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역사적인 도시이고, 광주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동아시아대회 등 각종 국제회의와 월드컵 4강 신화, 광주 하계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메가스포츠를 유치해 개최한 국제도시지만, 광주관광과 MICE(비즈니스 관광) 산업의 현주소는 이와는 너무나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5·18 관련 역사와 자료, 그리고 풍부한 문화관광의 자원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는 회의와 포상관광, 전시·박람회 등 복합산업인 MICE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MICE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 서울과 부산 등 관광도시와 차별되는 광주만의 관광전략을 마련하고, 관광상품 다양화와 해외시장 다변화, 면세점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MICE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900여명의 외국어 전공자와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15개 언어권 400여명의 다문화가정 인력을 MICE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각종 국제 행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특징적인 건축물이나 불거리를 갖춘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투어버스 활성화 등을 통한 전남과의 관광연계, 기존 호텔 개·보수 및 숙박시설 신축 시 재정지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강화, 스마트시티(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 기능을 연계망으로 조성한 도시) 조성, 지역고유 역사와 문화 등을 활용한 광주의 고급 관광소재 '광주 유니크(Gwangju Unique)' 발굴 등을 통해 숙박·교통·관광·문화가 집중한 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풍부한 지역자산 활용

이밖에도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국제행사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사업의 선별 추진, 지역민의 관광마인드 제고 노력 등 단기성 위주가 아닌 비전에 바탕을 둔 관광개발이 중요하다.

이제는 광주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사설
자영업자득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갈등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시민권익위가 시민단체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시장실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갈등은 이미 추진된 행정위의 반복으로 인한 광주시의 자영업자 성격이 짙지만 시민단체의 물리적 행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권익위 최영태 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일방적 공론화기구 구성 등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시는 "공론화기구 구성 등이 진행 중인데 시민단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논란이다"는 입장이다. 양측 갈등에 대한 어느 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예견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특히 이날 시민단체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체로 시장실을 향의 방문, 시장실로 진입하려다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물리적 마찰과 언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갈등이고 마찰인지 모를 일이다. 도시철도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의 논란 끝에 현행 건설 방식이 확정됐다. 더 이상의 갈등과 논란은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확산된다면 공론화위원회에만 매달리지 않는 시의 결단도 필요하다

폭염피해 방지 근본대책 필요하다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3도 이상의 폭염이 한달이상 지속되며 폭염특보가 최장발효 일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더위가 꺾인다는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육박했다. 폭염이 일상화·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광주·전남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른 폭염 일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연 35일을 넘어섰다. 연속 기록 최고 최장발효 일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에선 380여명의 온열환자가 발생, 6명이 사망했다. 농축산·어업 분야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기에 폭염이 쉽게 누그러질 기미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걱정이다. 지난 15일에도 광주·전남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광산구는 39.3도를 기록하며 다시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도대체 언제까지 폭염이 이어질지 걱정스럽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자체들의 폭염 대책은 만족스럽지 않다. 잠시 땀방울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해마다 더위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무엇보다 농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농수축산 어업분야의 피해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현재의 기온 추세라면 폭염은 고착화·연례화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열섬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염 대책은 온실가스 저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마땅하다.

독자광장

폭염 틈타 농산물 절도 기승, 사전 예방해야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고추 수확량 등 농산물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절도범이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 새벽에 밭이나 논으로 나가 해가 진 후 집에 귀가하고 농가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원거리로 위치해 인적이거나 다른 지역의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더욱 더 수확한 농산물 등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잠금장치나 경보기의 존재만으로도 절도범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한다. 둘째,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범행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도가 발생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에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CCTV를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농촌 주변을 배회하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보이면 번호판을 꼭 기억해두고 경찰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다가올수록 농산물 절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농산물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허남열 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에세이



김수자
수필가

요즘 신경 써야 할 일이라면 단연 '제초작업'이다. 장마답지 않은 장마철, 우기임에도 가뭄 타고 있는 들녘에서 오직 기세를 뽐내고 있는 것은 잡초들이다.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들은 이렇게도 잘 자랄까? 하도 궁금해서 물어볼라치면 "사람들이 게을러질까봐 하는 낚시 시늬해보시느라고 그런단다"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풀은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자

란다. 적어도 한 해 여름에 최소한 서너 번은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넓은 농장주변의 땅을 제초제를 쓰지 않고 좀 더디고 수고스럽더라도 사람 손으로 풀을 베는. 키우는 가족들과 관리인들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산비탈이나 길가, 밭두렁 논두렁에서 엉형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연일 산중의 고요를 깬다. 예초기를 들이댈 수 없는 마당이나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내 몫이다. 울해처럼 체온을 넘어서는 날씨에는 노약자들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라는 방송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은 들려온다. 그렇다고 꼼짝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면 집 안팎이 잡초천국으로 변하니 나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잡초들과 한판승을 겨뤄보기로 한다. 제초삼매라고나 할까. 오직 풀과 힘 자랑 하느라 무아지경이다. 무심코 호미질하고 있는 눈앞에 웬 사람의 다리가 불쑥 나타난다. 인적 없는 산중에 무슨 낮도깨비인가

한여름 낮의 소동

흔히백산하여 올려다보니 취업한지 두 달 돼가는 몽골인 직원이다. 코앞에 발을 들이릴 때까지 인기척을 못 느끼다니 내가 풀베기에 너무 빠져 있던 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사라도 하려고 쳐다보니 이 직원, 전신이 땀범벅이다. 언덕 너머에서 들리던 예초기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름이 '바기'라고 했는데, "용무가 뭐죠? 어떻게 왔어요?" 물어도 묵묵부답이다. 입을 꼭 다문 채 땅을 쳐다보다가 나를 보다가 할 뿐이다. 이때부터 나는 이 상황에 어울림직한 영어와 한국말을 다 늘어놓으며, 온갖 몸짓 연기를 다 했다. 그런데도 가타부타 예스나 노 한 마디 반응이 없다. 내가 몽골 말을 못하니 사람 둘이 있다 한들 완벽한 '소통부재'며 적막강산에 다름 아니다. 물 먹고 싶어요? 물? 물? 커피? 커피 마시고 싶어요? 설마 커피는 알아듣겠지? 그래도 반응이 없다. 이런 처지에 말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는 바기의 팔을 끌고 집으로 왔다. 바람이 시원한 처마 밑 의자에 앉혀두고 냉수 한 대접과 냉커피 한 잔을 내왔다. 마침내 웃음 띤 얼굴로 꾸벅꾸벅 절을 해대는 것이 만족해하는 눈치다. 더위에 풀 베느라 목이 마르고 몸시 힘들었나보다. 서투른 한국말로라도 몽골에 있는 가족들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텐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다두었던 몽골 안내책자는 이사 통에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낼 시간이 없다. 보관용으로 단 두 권 남아있는 내 책을 가져와서 책 표지의 얼굴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나예요. 이 책, 내가 썼어요."하고 손짓 발짓 하니 눈이 동그레진다. 나는 책의 첫 장에 '바기 파이팅'이라고 사인해 주었다. 물론 읽을 수는 없겠지만 내 후의를 전하고 싶었다. 취업한지 2개월이면 웬만한 우리말 및 마디는 알아듣고 우리말 인사 정도는 할 때도 되었는데, 유난히 언어습득이 뒤쳐지는 바기가 걱정스럽다. 한국말 개인교습이라도 해줘야 할지 고민된다.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은 필수



한충현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영화관·백화점·PC방 등 실내에서 활동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정작 화재 시 대피하기 위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지, 전열기구 등의 냉방기구 사용이 많은

여름철은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피난에 있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안타깝게도 29명이 희생됐다. 특히 2층 여자 사우나에서 20명이 희생됐는데, 화재 당시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이 비상구를 막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본능적으로 화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 대피하려고 한다. 사전에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낮설고 어두운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도와주는 소방시설을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활동자료조사와 소방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조사 결과 비상구 폐쇄 등 불

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소방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객과 관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은 건물 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피난안내도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단 경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되어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주시 관심을 가지고 보길 부탁한다. 또한 피난을 도와주기 위해 비상구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복도에는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도등은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구나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숨지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재를 떠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필멸형 어두운 공간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구,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습관으로 비상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호 사장·발행·편집인 김용호 상무이사겸편집국장 이태호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본실 (062) 720-1032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2부 (062) 720-1056 문화부 (062) 720-1071-72 체육부 (062) 720-1043
사진부 (062) 720-1040 전신팀 (062) 720-1033 관리국 (062) 720-1012 판매국 (062) 720-1098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월간국 (062) 720-1006-0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처 다원인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222-5666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13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20-6900 ▲전남대병원 220-3114
▲232-3117 ▲조선대병원 220-3114